



유신, 베트남서 대형 도로 용역 수주

(주)유신이 베트남에서 총 100억원 규모의 대형 도로사업 용역 2건을 따냈다.

유신은 최근 세계은행(WB) 재원으로 발주한 베트남 하노이 순환도로 건설공사감리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원 사업인 베트남 217번 도로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을 수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총 계약규모는 약 100억원(약 920만달러)에 달한다.

유신이 수주한 하노이 순환도로는 하노이 제2순환도로 중 도심지를 통과하는 나탄~꺼우자이 구간으로, 총 연장 6.2km 규모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하노이 시내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 남쪽에 위치한 217번 도로는 라오스 국경을 연결하는 총 연장 196km의 도로로 확장 및 신설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서영엔지니어링, 창립 21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주)서영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1주년을 기념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언기 사장은 "업계의 어려움에도 동요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당면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기업을 향해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한국종합기술, 콩고민주공화국에 기술력 소개

(주)한국종합기술이 아프리카의 자원부국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정부 관계자를 회사로 초빙해 환경플랜트와 SOC 분야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18일 한국종합기술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2 아프리카 자원부국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DR콩고의 에너지부 비서실장 매트르 쿨르파 엘랑브(Maitre Nkulufa Elembé)를 회사로 초빙해 플랜트와 SOC 사업 추진시 DR콩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매트르 쿨르파 엘랑브 비서실장은 이강록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비탕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향후 DR콩고의 SOC사업 추진에 한국종합기술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주최한 이번 투자설명회는 자원개발, 플랜트산업 등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주요국 국장급 실무관료들을 초청해 한국의 발전된 자원 및 에너지플랜트 분야 산업시찰을 통해 국내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초청 국가는 DR콩고, 모잠비크, 가봉, 우간다 등이다.



한국해외기술공사, 캄보디아 홍수 피해 복구사업 설계·감리 수주

(주)한국해외기술공사는 지난 5월 20일 캄보디아 지방개발부(MRD)가 발주한 도로 긴급복구 사업의 설계·감리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호주국제개발청(AusAID) 재원으로 발주된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캄보디아 홍수로 피해를 입은 450km 도로를 긴급복구하는 사업이다.

한국해외기술공사는 지난해 ADB 차관으로 발주된 97만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에서도 설계·감리를 담당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주가 그동안 ADB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있을 국제개발금융기구(MDB) 사업 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